

구두 한 결례와 책 한 권

오늘 우리사회에서 과연 책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광고를 최근 발견했다.

그 하나는 신문의 간지처럼 끼워서 배달되는 '짜라시' 광고이다. 든든도모듯 희한한 출판사의 전집물 할부판매이기 십상인 이 짜라시광고는 대개, 팔려고 내놓은 책이 우선인지 그 책을 살 경우 끼워주겠다는 경품이 우선인지를 알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나 할까, 책을 살 경우에 끼워주겠다는 경품의 액면가가 책의 그것보다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이 보기엔 오히려 책이 끼워 팔리는 것처럼 여겨질 지경이다.

아무개의 글씨 한폭이나 도자기 한점을 팔기 위해 책은 마치 돌리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들 짜라시광고에서의 책의 신세는 참담하다.

다른 하나는 그래도 애교가 있다. 모 제화사의 구두 광고가 그것인데, 통5단 크기의 그 신문광고를 보면 구두 한 결례 사는데 S출판사의 책 한권을 선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말하자면 앞의 경우보다 정정당당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책의 수요가 늘는 것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일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구두 한 결례에 끼워 팔리는 책 한권의 신세가 안쓰럽고 불유쾌하다는 것이다. 책 한권의 가치가 구두 한 결례도 아니고, 그 구두 한 결례를 사는 부수적 댓가 정도로 여겨진다는 것이 꽤나 섭섭하게 생각된다.

그같은 섭섭함은 우리나라 구두산업과 책산업의 경제력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책산업 쪽에서 보자면 오히려 구두산업 쪽에 고마움을 가져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설당 한봉지가 아니라 책 한권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은전'을 고마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배알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굳이 품위와 격조를 따질 일은 못되겠지만, 책이 구두의 경품으로 끼워팔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구두 한 결례 값에도 못 미치게 책의 가치가 매겨지는, 오늘 우리사회의 책에 대한 대접은 그 광고의 있을 법한 애초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 정소연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 61호/1990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堯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燾天 崔炳天 金允淳 金俊姬

등록 1987년 6월 9일—4 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沈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鏞廈 安秉永
安輝濤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瑞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鍾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계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었습니까.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5월 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 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4호(6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 1

많은 남성들중에 유일한 여성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이는데, 王荊公의 「石榴詩」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은?

- ① 白眉
- ② 紅一點
- ③ 拔群

④ 獨也青青

문제 2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벌여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의 '鱸祭魚'는 詩文을 지을 때 많은 책을 벌여놓고 참고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에 든 唐의 시인들 가운데 「달제어」로 불릴 정도로 만권의 서책에 묻혀서 새끼 길은 작품을 주로 쓴 사람은? 晚唐의 세기말적 분위기를 담은 「연애시」를 즐겨 지었다.

- ① 李白
- ② 李賀
- ③ 李商隱
- ④ 王維

문제 3

“불효한 자식을 갖는 일은 뱀의 이빨 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말을 한 왕이 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 세 딸을 가졌던 이 잉글랜드의 왕은?

- ① 리어왕
- ② 아더왕
- ③ 맥베드
- ④ 호텔로

문제 4

조선 숙종때 西浦 金萬重이 남해

로 귀양갔을 무렵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는 소설은?

- ① 사씨남정기
- ② 구운몽
- ③ 흥부몽
- ④ 옥루몽

제59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9회(4월 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2통, 이중 정답자는 3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 1

- ① 김동인-감자-평양
- ② 현진건-운수 좋은 날-서울
- ③ 황순원-곡예사-부산
- ④ 김동리-무녀도-경주
- ⑤ 김원일-마당 깊은 집-대구
- ⑥ 현기영-순이 삼촌-제주
- ⑦ 조해일-아메리카-동두천
- ⑧ 이청준-당신들의 천국-소록도

- ⑨ 박경리-김약국의 딸들-충무
- ⑩ 홍희담-깃발-광주

문제 2

- ① 김정환-모래톱 이야기-낙동강
- ② 안수길-북간도-두만강
- ③ 김동인-배따라기-대동강
- ④ 이정환-셋강-한강
- ⑤ 박경리-토지-섬진강
- ⑥ 채만식-탁류-금강

문제 3

- ③ 광산춘

당첨자

- 이장우(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7-423)
- 문명자(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23-24)
- 정연진(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한림대학교 도서관)
- 전세정(경남 밀양시 내일동 신화 APT 1동 409호)
- 태향미(서울시 구로구 고척 2동 산 17-8)